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

수험 번호

제 [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여 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.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,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 줍니다. 이러한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입니다.



- 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법칙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.
- ②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.
- ③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.
- ④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한다.
- ⑤ 의무 의식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을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.

2. (가)의 고대 중국 사사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군자와 소인의 본성[性]은 다르지 않다.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.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[化性起偽] 때문이다.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.</p> <p>을: 군자는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예지(仁義禮智)를 본성으로 삼는다. 그리고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마음을 보존한다. 인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써 마음을 보존한다.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.</p>
(나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범례> A: 갑만의 입장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C: 을만의 입장</p>

<보 기>

- ㄱ. A: 군자는 소인과 달리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.
 ㄴ. B: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.
 ㄷ. B: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.
 ㄹ. C: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ㄹ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ㄴ, ㄹ

3. 사회사사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.

을: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,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.

- ① 갑: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.
- ② 갑: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.
- ③ 을: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.
- ④ 을: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.
- ⑤ 갑, 을: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.

4. 근대 한국 사사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일원(一圓)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(見性)이고, 일원의 본체를 지키는 것은 양성(養性)이며, 일원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술성(率性)이다. 이 공부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학식과 총명에 관계없이 성불함을 얻으리라.

을: 수심정기(守心正氣)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남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다. 이 마음을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,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,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하라.

- ① 갑: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.
- ② 갑: 물질 문명을 완성한 이후에 정신 개벽을 이루어야 한다.
- ③ 을: 마음속이 아닌 하늘에 존재하는 한울님[天主]을 섬겨야 한다.
- ④ 을: 천지공사(天地公事)를 통해서 사람들의 원한을 해소해야 한다.
- ⑤ 갑, 을: 유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가 사상을 통합해야 한다.

5. 고대 서양 사사가 갑, 중세 서양 사사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신이 하는 일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.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, 즉 자연의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.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.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.

을: 신은 최고 존재이며, 무(無)에서 창조한 것들에게 존재를 주었다. 그런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.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.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,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.

- ① 갑은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.
- ② 갑은 인간이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.
- ③ 을은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본다.
- ④ 을은 믿음이 아닌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으로 지복이 가능하다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인간이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.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6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이다. 이 계층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.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.

을: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하며, 반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다. 용기라는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.

- ① 갑은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.
- ② 갑은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.
- ③ 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.
- ④ 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앎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.

7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,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.

을: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,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.

- ① 갑: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.
- ② 갑: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.
- ③ 을: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.
- ④ 을: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.
- ⑤ 갑, 을: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.

8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갑: 우상(偶像)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,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한다. 이러한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(公理)를 형성하는 것이다.

을: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, 지식은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. 과학과 신기술은 가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. 이러한 도구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효과적인 도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.

<보 기>

- ㄱ. 갑: 우상 타파를 위한 최선의 탐구 방법은 삼단 논법이다.
- ㄴ. 을: 실험과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.
- ㄷ. 을: 지식의 유용성보다 자명한 지식의 발견을 중시해야 한다.
- ㄹ. 갑, 을: 자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9. 가상 대화의 ‘스승’은 한국 유교 사상가이다.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제자: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“사단과 칠정은 기(氣)가 발한 것이고, 칠정은 사단을 겸(兼)한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 오늘은 그때 잠깐 언급하셨던 수기(修己)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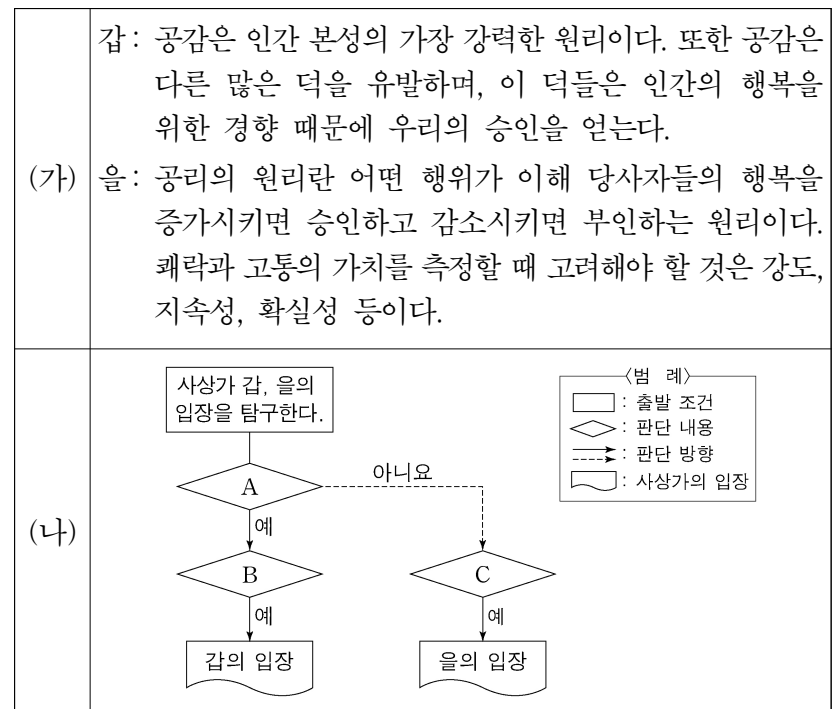
스승: 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뜻을 세워야[立志] 하네. 그 다음은 수렴(收斂)인데, 이것의 핵심은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(敬)을 지니는 것이라네. 수렴 다음에는 궁리(窮理)와 성실(誠實)에 힘쓰고 기질을 바로잡아야[矯氣質] 하네.

<보 기>

- ㄱ.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[一邊]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인가?
- ㄴ.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[矯] 하는가?
- ㄷ. 경을 지니는 것[持敬]은 궁리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가?
- ㄹ. 경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해야 성(誠)에 이를 수 있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0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

<보 기>

- ㄱ. A: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선할 수 있는가?
- ㄴ. A: 도덕은 공감의 원리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기초해야 하는가?
- ㄷ. B: 덕과 부덕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에 의해 구별되는가?
- ㄹ. C: 행위의 도덕성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1. 한국 불교 사사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법이란 '중생의 마음[衆生心]'을 일컫는다. 대승 가운데 있는 일체의 법은 별도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. 모든 법 자체가 오직 일심(一心)이다. 그러므로 일심을 대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.

을: 부처는 '중생의 마음' 속의 부처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. 모든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하면 무명(無明) 속에 있는 자신조차도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. 깨친[頓悟] 다음에도 습기를 점차 소멸시켜 나가야[漸修] 한다.

- ① 갑: 일심의 법에서 보면 생겨남[生]과 사라짐[滅]은 둘이 아니다.
- ② 갑: 부처의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니 화쟁(和靜)해야 한다.
- ③ 을: 내 마음이 부처임을 자각하면 더 이상의 수행[修]은 필요 없다.
- ④ 을: 혜(慧)는 정(定)을 떠나지 않고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.
- ⑤ 갑, 을: 모든 중생은 불성(佛性)을 지녔으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.

12. 다음은 고대 중국 사사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성인(聖人)은 무위(無爲)에 머물고,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합니다. 또한 만물을 잘 자라게 해 주면서도 가지려 하지 않고, 공(功)을 이루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.

성인(聖人)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시비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. 또한 덕의 조화[和] 속에서 마음을 노닐게[遊心] 합니다.

갑



을



- ① 갑: 성인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.
- ② 갑: 성인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돕는다.
- ③ 을: 성인은 도(道)의 관점에서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한다.
- ④ 을: 성인은 각각의 자연적 특성을 가진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.
- ⑤ 갑, 을: 성인은 예(禮)를 가르쳐서 백성의 본성이 실현되도록 한다.

13. 사회사상 (가), (나)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완전 고용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.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효율적 수단이므로,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(나) 완전 고용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. 생산의 계획화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, 이 계획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.

<보 기>

ㄱ. (가): 유효 수요의 과잉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.

ㄴ. (나): 공공의 이익 증진이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.

ㄷ. (나): 계획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.

ㄹ. (가), (나):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[14~15] 갑,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사려 깊고, 아름다우며,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.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, 아름다우며,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.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, 즐거운 삶은 덕과 떨어질 수 없다. 즐거움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.

을: 즐거움에 굴복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, 사실은 그 좋은 일이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. 어떤 것이 지금보다 더 좋고,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즐거움에 굴복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.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지이고,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지혜이다.

14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갑: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불안이 생길 수 있다.

ㄴ. 을: 지혜를 갖추어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.

ㄷ. 을: 앎이 없어도 지나친 욕구에 대해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다.

ㄹ. 갑, 을: 행복을 위해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.

- ① ㄱ, ㄹ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ㄷ, ㄹ

15. 갑과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○ 두 가지 쾌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쾌락을 높이 평가해서 다른 쪽의 쾌락에 비해 그 양이 적을지라도 선택 한다면, 그 쾌락은 질적으로 훨씬 우월한 것이다.

○ 우리가 인정하는 자기 포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그 행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헌신뿐이다. 이때의 다른 사람들은 인류 전체이든, 인류 범위 내에 있는 개인이든 무방하다.

- ① 행복을 위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가?
- ②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희생 자체는 선인가?
- ③ 사회 전체 쾌락의 극대화를 도덕적 행위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?
- ④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?
- ⑤ 쾌락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가?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16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색(色)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. 무슨 까닭인가?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,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 이니라. 수(受), 상(想), 행(行), 식(識)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, 이 오온(五蘊)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.

—<보 기>—

ㄱ. 오온의 실상(實相)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.
 ㄴ. 만물은 무상(無常)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.
 ㄷ. 불변의 실체로서의 '나'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.
 ㄹ.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17. 갑,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.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.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.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.

을: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신 또는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부터 생겨난다.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.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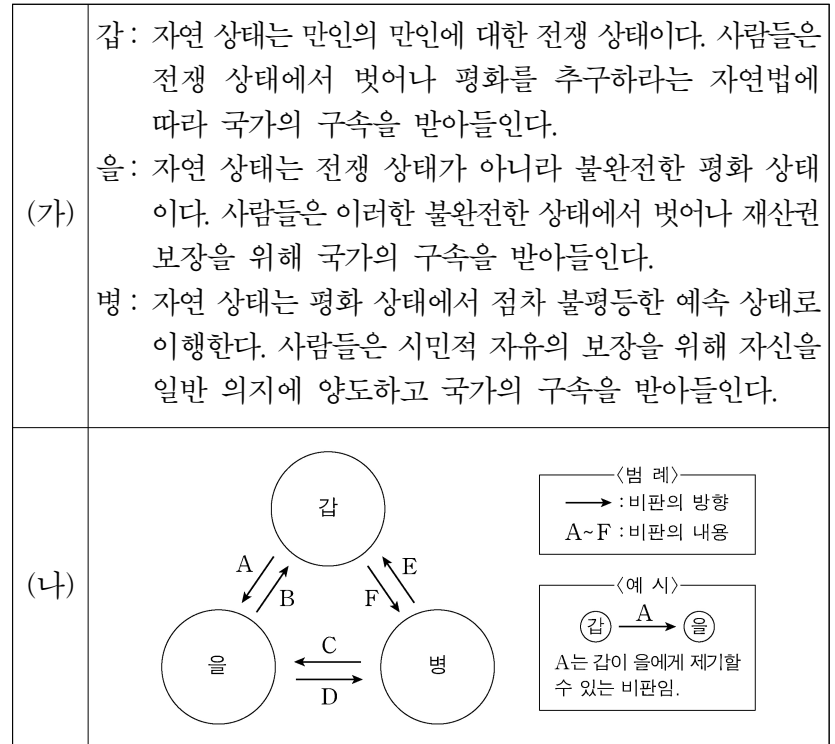
- ①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.
 ②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.
 ③ 보편적 법칙에 대한 순응이 실존 회복의 근거임을 모르고 있다.
 ④ 행복을 누리려면 이성을 통해 감정을 순화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.
 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임을 모르고 있다.

18. (가)의 갑, 을은 유교 사상가들이고, (나)는 유교 경전의 일부 내용이다. ㉠, ㉡에 대한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람의 성(性)이 선(善)을 좋아함은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. 성과 행함[行] 때문에 덕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. 사단은 심(心)이라고 할 수 있다.</p> <p>을: 성(性)은 하늘의 이치[理]이다. 마음[心]은 성과 정(情)을 통괄한다. 마음이 물과 같다면 성은 물이 고요할 때와 같고 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. 사단은 성이 아니라 정이다.</p>
(나)	<p>㉠ 측은지심(惻隱之心)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. 측은지심은 ㉡ 인(仁)의 단(端)이다.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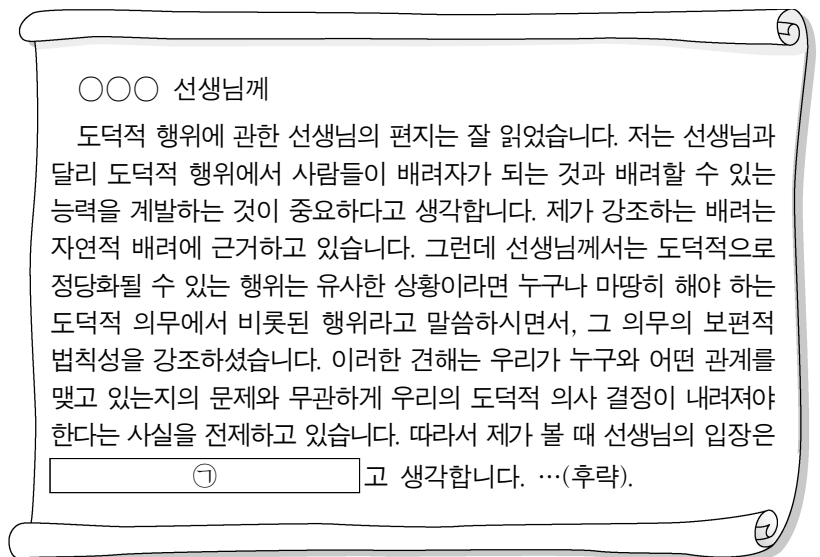
- ① 갑: 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.
 ② 갑: ㉠을 확충하기 이전에는 마음에 ㉡이 존재하지 않는다.
 ③ 을: ㉠은 ㉡이 마음에 내재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이다.
 ④ 을: ㉠은 마음의 쓰임[用]인 정이고 ㉡은 마음의 본체인 성이다.
 ⑤ 갑, 을: ㉠과 달리 ㉡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[天理]이다.

19. (가)의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A, F: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.
 ② B: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선책임을 부정한다.
 ③ C: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.
 ④ D: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소유함을 간과한다.
 ⑤ E: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.

20. 다음은 어느 현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.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의무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
 ②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
 ③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
 ④ 도덕 교육의 과제가 이성에 의한 추론 능력의 함양임을 간과한다
 ⑤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간과한다

*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